

# ‘그리스도의 부활’

이번엔 서양미술사에서 특이하고 신기한 화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희한한 미술 작품을 많이 보아왔다. 이제는 추상미술도 거의 고전이 되다시피 하여 많은 이들이 즐겨 감상을 한다. 여하튼 미술의 이해는 ‘앨러지’와 비슷해서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르다. ‘샤이 톰블리’ 라는 현대화가의 그림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의 그림은 어린 아이가 함부로 그린 듯한 그림인데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필로 휘갈기듯 벽에 낙서를 한 것 같은 작품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장난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그림 앞에서 해탈과 환희를 느끼지만 어떤 이는 구역질이 날 정도라며 극심한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소개할 화가가 딱 그랬다. 사백여 년 전 작가인 엘 그레코(1541-1614)이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작품은 성당의 제단화로 쓰여졌다. 보는 바와 같이 좀 기괴하기까지 하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개성 강한 작가로도 볼 수 있지만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사이에 맞물려 이어간 매너리즘 시대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정신병에 걸렸거나 의학적으로 유해재료의 독성 때문에 시각적 뒤틀림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 하기도 했다.

이 제단화를 살펴보자.

제일 먼저 예수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간다. 예수의 얼굴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면서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으며 오른 손은 영원을 가리키며 내가 부활하였으니 나를 따르라고 부드럽게 손짓을 하고 있다. 뒤 배경은 무덤의 입구이고 예수의 후광은 일반적 원형이 아닌 마름모꼴 형태이다. 원형보다는 보다 더 진취적으로 하늘을 향하는 기상을 나타내려 한 것 같다. 왼 손의 깃발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상징한다. 적색의 망토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림의 하단부에 상하 대칭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놀란 나머지 뒤로 자빠지는 경비병을 배치해 강력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쓰러진 경비병은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있다. 좌측의 경비병도 그리스도의 휘광 때문에 두 손 두 팔로 얼굴을 가릴 수 밖에 없고 뒤편 좌우의 경비병은 두려움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한편 오른 편에 청색의 옷을 입은 제자(?)같은 이는 한 손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을 나타내고 있고 왼편 뒤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인물도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칼과 방패를 든 경비병은 이 놀라운 일에 허겁지겁하는 행동을 보인다. 예수의 발끝과 넘어진 경비병 발끝 사이에 위치한 경비병은 아직 잠에 취해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영겨지고 채색도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고 광원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이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일곱 사람들이 모든 공간에 꽂차 있어서 구분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러한 영김은 현실 세계에서는 한 장면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내면적 신앙의 추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잡다한 현실적 제약을 허무는 길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해부학적 신체비율을 타파하여 과장된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8 등신, 9 등신 아닌 12 등신까지 왜곡을 하여 초현실적 이미지를 만들어 단순한 변화가 아닌 고딕 건축처럼 하늘로 치솟는 구도적 자세를 연출한다. 작품의 채색은 르네상스의 정돈되고 이상적인 화려함 보다는 자연적 색채를 배제한 모노크롬의 단순성을 추구한다. 자연스러운 색채를 없애다 보니 현실감보다 초현실적 생소함으로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게다가 굵고 거친 붓 터치는 강렬하면서도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두 일곱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우리들의 전형이다. 정녕 이 그림에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뒤로 넘어졌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병사인가? 아니면 부활의 기쁨으로 환호하는 제자인가? 혹은 아직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병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에 놀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칼과 방패를 휘두르며 예수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구와 닮아 있을까? (2편으로 이어짐)

글/김웅배 안드레아



엘 그레코 (El Greco), 1597-1600 작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연중  
제 14주일  
2023년  
07월 0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오 11,25-30>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9,9-10  
#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9,11-13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11,25-30  
# 성가번호      입당 337,            봉헌 210            성체 180            파견 82

## 성당 소식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 🌸 미사지향 (연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 세레나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로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곽창진(스테파노) - 곽 루시아
- 이달성 - 이막동(아네스)
- 김경희(수산나) - 이명호(비비안나)
- 박로철(야고보) - 민 엘리자벳

###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데레사) - 임 안나
- 성경숙(아가다) - 노스브릭스위 구역, 이막동(아네스)
- 이 마이클 - 오경선(원선시오), 성낙순(미카엘라)
- 성순영(리파엘라) 가족 - 에디슨 구역, 성낙순(미카엘라)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김규옥(올리바) - 민 엘리자벳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30명) ..... \$1,135
- 교무금 .....  

손흥구(7-9)	허종(7)	이광호(7-8)
서경호(7-8)	김삼식(7-8)	오경선(7-8)
- 교무금 총액은 7/16 주보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곽 율리안나     | 방진숙(데레사)  |

### 🌸 2023년 제 27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 일시: 7. 22(토) 오전 9시 - 7. 23(일) 오후 5시
- 참가비: \$35(점심 포함)
- 장소: 뉴저지 포트리 하이스쿨
- 알림: 성당 입구 카트에서 성령대회 티켓(한장 당 \$35)을 가져 가신분들은 유희자 베로니카 자매님께 \$35를 지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아 봉쇄교육

-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4시-17일(일) 오후 5시 (2박 3일)
- 장소: 뉴저지 뉴턴 베네딕도 수도원
- 인원: 선착순 35명 (본당별 배정 없음)
- 신청마감: 2023년 8월 20일(주일) 까지
- 지도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300 (2박 3일 숙식비 포함)
- 준비물: 성서, 레지오 교본 및 수첩, 목주, 세면도구, 실내화, 간편한 옷차림, 정장(또는 한복) 한벌
-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본당 신부님의 서명을 받은 후 채미영(데레사) 꾸리아 단장님께 신청서류와 참가비를 일괄 접수

### 🌸 2차 헌금

- 7월 9일: 유틸리티

🌸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매월 첫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8/6 럽거스

###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7월 1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단체장 참석: 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 🌸 유아 및 청소년 세례 안내

- 7월에 16일 주일 10시30분에 있을 유아 세례, 청소년 세례에 대한 공지입니다
-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세례의 경우 부모가 아기 대신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암기
- 성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영성체 하는 방법 숙지
- 고해성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고해성사 보는 방법 숙지
- 묵주기도 하는 방법 숙지
- 세례성사 전후 3개월동안 주일미사 빠지지 않고 참석
- 세례 후 1개월 후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공지사항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가 끝나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정문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정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1. 모든 쓰레기통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쫄운다
- #2. 재활용통에 쓰레기 버리지 말것
- #3. 재활용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는다.
- #4. 바닥 청소
- #5. 소등 및 문 단속

# 건의사항은 사목위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목회에서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동시에 수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말씀번역

### 🌸 제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9,9-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9.11-13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빛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마태오 복음11,25-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에우차리교구공회

###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성사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들이 필요한가요?

가톨릭 교회에는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일곱 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 자유와 영광 가운데 하느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